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20
Busan Cultural Center 20th Anniversary

부산시립무용단 제 58회 정기공연
The 58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이쁜이 시집가는 날

춤
극

춤극
연분

Cast

부산시립무용단 제 58회 정기공연

The 58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첫째날 5.22(목)

5.23(금) 둘째날



이쁜이 윤은하



미선 류권홍



감분이 이현정



이쁜이 김진영(부수석)



미선 강모세



감분이 김주령(수석)



숙부 장래훈(수석)



맹노인 김병주



맹진사 이정식(부수석)



맹진사부인 오숙례



삼돌이 이창규

프롤로그 - 빙탄상애 (氷炭相愛)

당신이 얼음이라면 나는 숯이 되려오.
당신이 숯이라면 나는 얼음이 되리니.
뜨거운 가슴으로 그대 언 마음을 녹이고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내가 식혀 지키리다.



제 1막 태평성대 (太平聖代)

제1장 함진애비

돈으로 벼슬을 산 맹진사댁.
권문세가인 김판서댁과 혼인이 성사되어 황금빛 함 행렬이 들어온다.
맞이하는 맹진사와 가족들의 얼굴엔 행렬의 웅숭함에 더욱 큰 웃음이 번진다.
재물욕과 권력욕에 찬 그 웃음이 불행을 자초하는 씨앗인 줄은 알지 못하고 마냥
즐거기만 한 가족들, 세상모르고 천진난만한 아이들 같다.
행복은 욕심으로 우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제 2장 희비 (喜悲)

갑분은 꽃밭을 누비듯 행복하기만 한데 ---.
부럽지도, 기뻐해 주지도 못하고 바라만보는 입분은 헤어짐이 아쉬워
치마 고름만 뜯는다. 가지 말라 떼를 쓸까? 같이 가자 우겨볼까?
함께 살자 따라붙는 삼돌이는 밋기만 하고 ---.

제 3장 섬섬옥수

온화한 봄날, 마을의 처녀 총각들 나들이를 즐기듯 여유로운 풍경 속
에 갑분은 시집가는 생각에 겨워 마냥 행복한 모습이다. 쓸쓸한 얼굴
로 갑분을 따라 나왔던 입분은 버들잎 늘어진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나타난 낯선 사내가 물을 길는 입분에게서 물
을 얻어 마시게 된다. 사내는 입분이를 물에 떠 흔들리는 이파리보다
푸르고 우물보다 깊은 눈길로 조용히 바라본다.



서 정 숙 (총무) 정 진 희 (수석) 권 봉 정 (수석) 김 동 숙 (부수석) 이 정 인 (부수석)



제 2막 연목구어 (緣木求魚)

제 1장 소문

신랑의 숙부 명정이 '신랑은 절름발이'라고 소문을 흘리자, 그 소문이 맹진사네까지 흘러들어가고 맹진사네 난리가 났다. 일가친척 모두 모여 회의를 한다. 너도 절뚝 나도 절뚝 대책을 논하지만 묘책이 안 나온다.

제 2장 덧옷

갑분을 놀리는 동네처녀들을 내쫓고, 입분은 심술 난 갑분을 달랜다. 온전한 사랑, 그 진정한 마음만이 서로를 이어 살게 하는 것이지 몸의 잘 나고 못남은 덧입은 옷과 같은 것이라고.

제 3장 청맹과니

그 모습을 본 맹진사는 입분이를 대신 보내기로 한다. 갑분이를 숨긴다. 입분이를 설득한다. 혼사를 대신 치루라는 맹진사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입분이. 세도가와의 연으로 덕을 보려는 욕심이 절름발이 신랑을 만들고, 그 신랑을 피하고 자 다시 갑분의 혼사를 막게 되는 맹진사는 눈뜬 봉사와 같다.



서 현 미

강 미 향

황 선 희

이 성 원

김 공 주

오 수 연

김 주 연

김 미 란

김 경 미

이 현 주(A)

김 기 원

박 상 용

이쁜이 시집가는 날

청사초롱
연분

제3막 백년가약 (百年佳約)

제1장 초례

초례가 치러지는 날. 잔치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당도한다. 헛소문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신랑의 늙은 모습을 보게 된다. 비록 떠밀려 나왔지만 죄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는 입분이. 그래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상황을 되돌리려는 맹진사. 일을 꾸며내 착한 입분을 얻게 된 미연의 흐뭇한 미소. 입분을 잃게 된 삼돌이의 한탄. 이것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초례는 시작되고, 갑분이 뒤 늦게 당도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다.

제2장 초야

주렴을 늘인 신방. 거짓 혼인이 죄스러워 눈물과 함께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입분. 미연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는 입분의 그 모습 또한 사랑스러울 것이다. 그 또한 속이고 꾸민 일에 용서를 빌며 그녀를 감싼다. 헛되고 잡스런 마음 사라지듯 신방의 불이 꺼지자 어긋난 욕심으로 주저 앉아버린 맹진사네 가족들. 슬취한 삼돌이만 즐겁다.

에필로그 - 청사초롱

새로이 불빛들이 하나씩 밝혀진다.
마음의 불, 사랑의 불, 기쁨의 불, 우정의 불, ---,
또 불빛들 밝아진다.
권세의 불, 금전의 불, 재물의 불 ---.
그렇게 피어난 오색의 불빛들이 찬란히 출렁인다.
세상을 밝히며, 어지러이 떠돌며, 화려히 노니는

빛들이 어우러져 세상에 넘친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다.
보기 좋은 것도 마다하고 갖기
쉬운 것도 마다하고, 사랑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 두 사람. 입분과 미연의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하며 불빛들이 춤춘다.



전혜련 허태성 안주희 최의욱 김윤호 이현주(B) 이상민 박은혜 김정숙 황대현(비상임) 박광호(비상임) 성현우(비상임) 김영찬(비상임)